

옥타비아 버틀러(Octavia Butler)의 우화시리즈(*Parables*)에 나타난 비판적 포스트아포칼립스*

전 소 영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옥타비아 버틀러의 우화시리즈의 주인공 로렌 올라미나의 서사와 그녀가 디스토피아적 현실에서 미래를 위해 지구종이라는 종교의 운명을 성취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포스트아포칼립스 소설의 형식은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서술하는 동시에 유토피아적 희망을 포함하고 있는 역설을 가지고 있다. 정신적 지도자로서 로렌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도덕적, 사회적 패러다임인 지구종이라는 유토피아적 비전을 개발한다. 그녀는 타자의 느낌을 극도로 공감하는 특이한 타고난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그녀가 타자의 감정을 공감하게 만드는 일종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지구종이라는 신앙은 인간을 생명중심체계와 자연적 진화의 틀 안에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는 신이라는 지구종의 신조는 생존을 위해 융통성과 가변성을 수용함으로써 아포칼립스적 현실을 살만한 세계로 변형시키려한다. 결국 버틀러의 우화시리즈는 그녀가 기존의 사회적 문제들과 시스템에 대한 상상의 디스토피아적 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하고 있기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현재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포스트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 옥타비아 버틀러, 지구종, 변화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511).

I. 서론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지만 21세기가 시작되고 첨단 과학기술과 시장자본주의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유토피아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 2023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전지구적 전염병과 종교적,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국지적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구의 생태적 환경과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을 파괴시키며 인간과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발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고, SF소설에서는 현대의 발전이 이러한 양상으로 계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재앙과 같은 결과들에 대해 경고한다.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사회계급적 갈등관계, 국내외의 폭력사태, 마약과 같은 약물 남용등이 심화되면서 항상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는 아포칼립스적 사건의 순간을 상상하고 그 결과로부터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한다. 아포칼립스 소설이 핵전쟁이나 화산폭발처럼 통제할 수 없는 치명적 사건으로 인한 지구의 종말에 대한 서사라면, 포스트아포칼립스 소설은 아포칼립스 이후 폐허로부터 살아남아 새로운 세계와 사회를 재건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아포칼립스의 형식은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그리는 동시에 생존 가능한 새로운 세계라는 유토피아적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는 역설을 가지고 있다.

탐 모일란(Tom Moylan 2000:157)은 페미니스트 SF 작가 옥타비아 버틀러(Octavia Butler)의 우화시리즈(Parables)를 ‘비판적 디스토피아’(critical dystopia)로 보고, 20세기 초 전체주의적 근대를 비판하기 위한 디스토피아의 형식조차도 반유토피아적 입장뿐만 아니라 유토피아적 입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유토피아적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개방적 디스토피아와 반유토피아적 성향의 폐쇄적 디스토피아를 구별하고, ‘급진적 희망’(radical hope)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는 디스토피아는 미래

에 일어나게 될 부정적 변화에 대해 경고할 뿐만 아니라 해방과 저항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짐 밀러(Jim Miller 1998:337)는 버틀러의 소설이 1980, 90년대 페미니스트의 유토피아적 글쓰기의 전통 내에서 백인 여성작가들이 공유하는 가정들에 대해 질문 하며, 가부장제의 신화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인종주의 신화들에 대해서도 도전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버틀러의 포스트아포칼립스 소설은 20세기말 현대 사회의 위험한 경향들에 내포되어 있는 미래의 위험들에 대해 경고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고 속에는 기존 사회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 또한 내포되어 있다.

그녀의 우화시리즈 중 첫 번째 소설 『씨 뿌리는 사람의 우화』(*Parable of the Sower*)에 이어 『재능을 가진 사람의 우화』(*Parable of the Talents*)의 시간적 배경은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2024년부터 시작된다. 레이건 대통령시대의 신자유주의 아메리카의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버틀러는 자신이 살고 있던 20세기 말에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이상 계속되는 아포칼립스를 상상한다. 그녀의 실제 고향이기도한 LA의 근교를 배경으로 20세기의 기후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아포칼립스는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녀의 소설에서의 포스트아포칼립스가 곧 우리의 현실이다. 그녀가 소설을 쓴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은 2023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미국 정부는 사회 질서 유지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중앙정부로서의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경제적, 인종적 불평등, 마약중독, 높은 문맹율과 같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위상조차 잃어버린 상태이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오히려 캐나다나 알래스카가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본 연구는 버틀러의 우화시리즈에 나타난

포스트아포칼립스에서 주인공 로렌 올라미나(Lauren Olamina)의 서사와 그녀가 설립한 종교적 공동체가 디스토피아적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실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대항서사로서의 포스트아포칼립스

소설의 여주인공 로렌이 일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첫 번째 소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0대의 어린 로렌이 LA근교의 중산층 도시 로블리도(Robledo)에서 겪게 되는 폭동과 방화로 가족을 모두 잃고 탈출하여 북쪽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기후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로 2015에서 2030년까지 지속되어온 ‘팍스’(Pox)라는 대격변의 아포칼립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렌은 마약 복용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친모와 기독교 목사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고 새엄마와 여러 명의 이복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흑인이며 어머니의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타자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초공감’(hyperempathy)의 ‘약점’을 가진 반영웅적 주인공이다. 그녀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현실에서 언제든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마을을 떠날 수 있게 남몰래 여러 가지 비상 물품들을 준비할 할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믿고 있는 전통기독교와는 다른 자신만의 종교에 대해 생각하는 조숙한 10대이다.

21세기 대표적 포스트아포칼립스 로드 소설인 코맥 맥카시(Cormac McCarthy)의 『로드』(*The Road*)에서 살아남은 자인 아버지와 아들의 디스토피아적 여정을 로렌은 혼자서 버텨낸다. 그녀는 부족한 식량과 물품으로 인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서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남장을 한다. 그녀는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구종’(Earthseed)이라는 자신이 찾아낸 새로운 종교이자 삶

의 방식을 전파하며 마치 포스트아포칼립스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낸다. 사회적 질서와 공공의 치안은 이미 무너진 상태이기에 그녀는 최소한의 물과 식량으로 버티며 약탈과 폭력의 위협을 무릅쓰고 캘리포니아 남부로부터 북쪽으로의 살아남기 위한 여정을 위태롭게 이어나간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인원을 늘려가던 중 무리의 일원 중 한명인 반콜레(Taylor Bankole)와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고, 캘리포니아 북쪽의 반콜레 소유의 땅에 정착하며 ‘에이콘’(Acorn)이라는 유토피아적 공간을 형성한다¹⁾. 그곳에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방식을 거부하고 농사를 지으며 모든 물품은 직접 만들어서 자급자족하는 형식의 생활공동체를 정착시킨다. 물론 에이콘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안전한 천국과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이미 폐허가 된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자들에게 그곳은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지속가능한 경제적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다.

로렌의 일기 형식으로 서술되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는 각각의 장마다 그녀가 직접 집필한 『지구중: 산자들의 책』으로부터 발췌한 시와 같은 인용문으로 시작되며, 이러한 그녀의 서사는 일종의 디스토피아적 저항에 있어 중요한 무기이자 전략이다(Moylan 2000:149). 그녀의 일기는 기존의 권위적인 기독교 종교 및 가부장제와 사회적 경제적 지배 권력의 거대서사에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의 ‘대항서사’(counter-narrative)로써 계속해서 이동하는 힘든 여정 속에서도 로렌은 일기쓰기를 멈추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디스토피아적 현실에서 그녀의 서사는 사회적 비판의 가능성과 함께 유토피아적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

1) 마가렛 애트우드(Margaret Atwood)의 매드 아담(*MaddAddam*) 3부작에 나타난 신의 정원사들(God's gardener)이라는 집단들이 만들어가는 친환경적 공동체와 유사하다. 그들은 흙집에 살며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채식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폐허에서 남겨진 자원을 재활용하고, 지구의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동물, 곤충과 같은 다른 종들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 이 작품의 주인공 토비(Toby)의 일기쓰기 또한 로렌의 일기쓰기와 마찬가지로 소설의 주요한 형식이 된다. 매드 아담의 신의 정원사들에 대해서는 전소영(2022)을 참고.

이다. 필립 호웰(Phillip Howell 2023:1100)은 버틀러가 우화시리즈에서 사용하는 일기형식을 통해 독자들이 여러 가지 특성상 주변화 된 캐릭터인 로렌 올리미나에게 공감하도록 하며, 그녀를 통해 예측하기 힘든 아포칼립스적 미래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녀의 일기쓰기는 힘겨운 노정을 계속하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점이다.

나에게 글쓰기는 스스로에게 내가 인간이라고, 변화가
곧 하느님이라고, 나는 이곳에서 탈출하리라고 일깨워
주는 수단이다. 아무리 황당무계해 보일지라도,
나는 나의 글쓰기에서 위안을 얻는다. (옥타비아 버틀러
지음, 장성주 옮김 2023나:390)

버틀러(Butler 2000:165)는 가능성을 가려내고 경고하기 위해 앞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희망의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로렌은 그녀가 살고 있는 암담한 포스트아포칼립스적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과 전략들을 상상한다. 인종과 성별 및 빈부의 격차에 따라 서로 경계하고 벽을 쌓아 타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 이기적인 동종집단이 아닌 위기에 함께 대응하여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살인과 방화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도 로렌은 그녀와 합류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상호협력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인그리드 쉘러(Ingrid Thaler 2010:15)는 『씨뿌리는 자의 우화』에서 주인-노예 관계(master-slave relationship)는 중요한 주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로렌이 만들어나가는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들은 대부분 노예였다. 성노예에서부터 강제노역에 이르기까지 버틀러는 자신의 우화시리즈를 통하여 20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그녀의 조상들이 겪었던 노예의 서사가 새롭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을 마치 짐승처럼 전기 목줄을 착용시켜 조종하는 장면들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악랄하고 폭력적이다. 반면 에이콘은 로렌이 유년시절 살았던 한 울타리로 공동의 거주지를 경계지었지만 각각의 가정들은 서로에게 폐쇄적인 로블리도의 공동체와는 다르며, 구성원들 서로가 합의와 논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같이 협력한다. 제리 필립스(Jerry Phillips 2002:302)가 지적한대로 정부나 경찰이 제대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안전마저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부유한 자들은 그들만을 위한 ‘개인적인 유토피아’(privatopia)를 구축하였고, 그러한 이상향은 로렌에게는 현실의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실제 에이콘의 토대가 되는 땅은 반쯤래 개인의 소유였지만,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경작하며 그곳으로부터 생산된 물품들은 다 같이 동일하게 분배된다. 조운주(2020:334)에서 에드워드 벨라미(Edward Bellamy)의 『뒤를 돌아보며』(*Looking Backward*)에서 그려낸 미래사회와 21세기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예측했던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의 유사성을 지적했듯이, 지구종의 에이콘 또한 이러한 공유사회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후기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닌 흑인여성 로렌의 일기로 구성된 버틀러의 우화시리즈는 남성중심의 정치적, 종교적, 인종주의적 거대서사에 대한 대항서사라 할 수 있다.

III. 삶의 방식으로서의 지구종

로렌이 주장하는 ‘지구종’이라는 종교는 전통적인 종교적 개념과는 구별되는 실용적인 일종의 세계관이자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은 변화이다”(God is Change)라는 모토가 말해주듯이 그녀에게 신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며 변화가 곧 신이다. “변화는 유일한 피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주의 현실”(Talents 75)이기 때문이다. 폐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유동성의 가치가 필요하

다. 그녀의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로서 이웃들의 예배를 책임졌지만, 로렌에게 기독교의 신은 변화하는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낡은 시스템일 뿐이다. 따라서 지구종은 그녀에게 고정불변의 숭고한 종교적 진리라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하여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의 생존전략과도 같다. 지구종의 신은 초자연적인 권위자가 아니라 진실의 집합체이기에 로렌은 지구종을 창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실들을 발견한 것이다(Sower 69, Talents 45). 로렌이 하는 것은 그것을 관찰하고 시의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고, 그녀가 지구종에 대해 쓴 글들이 경전이 된다.

지구종의 긍정적 힘은 전통적인 종교에서처럼 고통을 감내하며 기도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목적과 필요에 맞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변형시킨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토론은 하지만, 정해진 기도모임이나 설교 같은 것은 없으며 대신 가르침과 명상으로 대체된다.

모름지기 성공한 삶이란
적응력이 좋고,
기회를 잘 타고,
끈질기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씨를 많이 퍼뜨린다.
이 점을 이해하라.
그것을 이용하라.
하느님의 모습을 빗어라.

(옥타비아 버틀러 지음, 장성주 옮김 2023가:218)

위 인용에서처럼 절대적 존재가 아닌 현실적 신을 형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스스로와 자신의 환경 또한 형성할 수 있다. 공동체를 만들어 그들만의 문화를 창조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

다. 구성원들끼리 뭉치지 않으면 약자를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 분열되고 약탈당하며 지배되고 살해된다(Sower 176). 그리고 지구종의 ‘운명’(Destiny)은 별들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Sower 199, *Talents* 65). 피터 스틸먼(Peter G. Stillman 2003:28)은 지구를 벗어난 새로운 세계가 지구에서의 인간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을 다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 지구종이 포스트휴먼적 종교라고 주장한다. 한편, 잉그리드 쏘러(Ingrid Thaler 2010:84)는 지구종이 인간과 생태계와의 상호연관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것의 중심은 여전히 인간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구종은 인간중심의 자율적인 개인주체 혹은 행위자를 상정하지 않으며, 타자와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자신과 타자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지구에서만이 아니라, 우주에 지구종의 씨를 산파하여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그것의 목표이며,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라는 종은 새롭게 살아날 수 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반꼴레는 로렌의 지구종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은 생물학적 진화, 카오스이론, 상대성 이론, 열역학 법칙 등등 현대의 과학적 이론들을 수용한다고 말한다.²⁾ 극우주의 기독교 종파의 목사가 된 로렌의 동생 마크(Marc)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을 하느님의 신성한 말씀으로 여기며 신앙에 의존하지만, 로렌은 이성과 신앙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결합하여 이성적이고도 실용적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한다. 따라서 혼돈과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카오스’(chaos)라는 단어는 마크에게는 부정적 의미이지만 로렌에게 그것은 과학적 이론에 따라 스스로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구조가 탄생되는 근거가 된다. 로렌은 로블리도와 우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크리스찬 수용소(Camp Christian)를 탈출하는 두 번의 생사의 시련을 겪으며 스스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믿은 것이 아니라, 타자와 상호작용하고 그들과의

2) Octavia Butler, *Parable of the Talents*, p.46.

관계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 배우면서 더 나은 삶과 세상으로 나아간다.

대통령과 결탁한 극우 기독교 단체(Christian America)³⁾의 침략과 약탈로 폐허가 된 에이콘을 포기하고 극적으로 수용소를 탈출하여 잃어버렸던 딸을 찾아 나섰을 때도 로렌은 우연히 알게 된 렌(Len)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소명은 지구종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구종의 신조에 따르면 개인은 자율적이고 자기충만한 존재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행동한다. 인간의 정체성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다양해서 지구종에서 인간은 각각의 인종, 나이, 계급, 성별, 종교적 차이들로 인한 구별과 상관없이 개방성과 가능성을 가진 일종의 ‘잠재태’이다.⁴⁾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존재이기에 진화라는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변 환경들을 선택하고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인간의 몸을 마치 동물이나 상품처럼 취급하는 현실에서 지배와 약탈, 권력과 위계질서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체성에서부터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형시켜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로렌의 초공감증후군은 그녀 스스로에게는 건디기 힘든 결점이었지만, 집단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은 현실적인 장벽들을 허물고 타자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남다른 능력이 된다. 김경옥(2023:18)은 버틀러가 기존 사회의 인간에 대한 냉담함과 무관심을 잔혹하게 그리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주인공의 극도의 민감성과 대비시킴으로써 포스트아포칼립스의 희망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교류에 있음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모든 사람이 긍정의 감정인 기쁨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고통마저 타자와 똑같이 공감한다면 소설에 나타난 마약중독자들처럼 무차별방화로 사람들을 죽이는 파이로중독자들(pyromania)은 사라질 것이다.

3) 이후 CA로 기재한다.

4) Octavia Butler, *Parable of the Talents*, p.361.

IV. 로렌의 ‘트러블과 함께하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는 2027년에 끝이 나고 『은총을 받은 사람의 우화』의 시간적 배경은 그로부터 5년 뒤에 시작된다. 전작이 로렌의 단일한 목소리로 서술되었다면, 『은총을 받은 사람의 우화』는 전체 서사의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로렌의 딸 라킨(Larkin)을 포함하여 4명의 화자의 목소리가 얹힌 다중적 서사의 형태를 취한다. 로렌의 종교와 신념 그리고 그녀의 결정들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라킨을 포함하여 남편 반폴레와 이복동생 마크의 서사는 로렌의 서사 자체에 대한 대항서사로서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보여준다. 특히 어린 시절 CA의 구성원인 양부모에게 강제로 입양되었던 라킨의 로렌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은 전편에서 그녀의 일기에 공감하던 독자들에게 이제까지의 로렌의 결정이나 신념들에 대해 다시 의문하도록 한다. 과연 에이콘과 지구종을 위해 자신의 가정과 가족의 목숨마저 위협에 처하게 하는 로렌의 선택들이 옳은 것인가?

반폴레는 에이콘을 떠나 할스테드(Halstead)라는 가진 자들만의 안정적인 도시에서 정착하여 전통적인 결혼생활을 누리자고 로렌을 계속 설득했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안정보다는 디스토피아를 벗어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에이콘과 지구종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로렌이 힘들게 에이콘을 정착시켜 경제적으로도 자족적인 공동체로 정착시킬 때쯤 CA의 구성원들이 에이콘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들은 마치 에이콘의 구성원들을 인간 이하의 노예처럼 부리며 여러 가지 잔혹행위를 일삼는다. 마치 서부 개척시대의 흑인 노예들을 다루듯이 첨단기술의 전기충격기가 장착된 목줄이 채워졌고 구성원들은 제대로 된 식량도 제공받지 못한 채 밤낮으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린다. 반폴레는 결국 사살되고 그녀의 딸 라킨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부모에게 입양된다. 로렌이 그동안 정성껏 가꾸었던 에이콘은 CA들에 의해 포로수용소로 변질되고, 가족들마

저 잃게 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에이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에이콘이 완전히 폐허가 된 후 유일한 가족인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캘리포니아 북쪽 오레곤으로 향하지만 지구종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에이콘이 공간으로서의 이상향이라면 지구종은 더 나은 세계에서 살기 위한 도덕적, 정신적 토대이기에, 로렌은 계속해서 그녀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구종을 전파하려고 노력한다.

로렌은 누구보다도 희생적으로 노예가 된 이복동생 마크와 딸 라킨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로렌의 결정들과 그녀의 지구종을 인정하지 못한다. 마크가 잃어버렸던 라킨을 먼저 찾았고 로렌이 그토록 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지구종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라킨을 찾았다는 사실조차 그녀에게 숨긴다. 이미 제도화된 기독교의 목사로서 인정받고 있던 마크에게 지구종과 로렌의 존재는 전통적인 종교와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자 도전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킨 또한 어린시절부터 지나치게 구속하는 양부모로부터 고통받았기에 스스로 지구종의 성공한 리더가 된 친모를 찾고 나서도 그녀에 대한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 그녀에게 로렌은 자신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지구종의 창립자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크 삼촌이 노예로 겪었던 일이 그를 표시했다면...
두들겨맞고, 강탈당하고, 강간당한 노예로서의 엄마의
과거가 그녀에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녀는 항상 강박적인
목적을 가진 육체적으로 무척 용감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타자를 기꺼이 희생하려 하였다. (옥타비아 버틀러 지음,
장성주 옮김 2023년:518)

과연 로렌은 라킨의 생각하는 것처럼 그녀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타자를 희생시킨 것일까? 오히려 로렌은 도너 해러웨이(2021:8)가 말하는 “손상된 땅 위에서 응답-능력을 키워 살기와 죽기라는 ‘트리블과 함

께’하며” ‘친족’이 아닌 ‘친척’(Kin)을 만들고 그들과 강력한 연대를 통해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자신과 지구종 공동체의 과제로 삼았다.

물론 버틀러의 우화시리즈에는 인간이라는 종을 넘어선 복수종 혹은 경계가 모호한 잡종적 정체성들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다양한 인종들로 섞여진 지구종의 구성원들은 해러웨이(2021:107)식의 “함께-세계만들기”(worlding-with)를 하기 위해 손상된 지구를 떠나 별들 사이로 펼치고 확장하려 한다. 해러웨이는 인간중심, 자본중심의 제국주의적인 인류세(Anthropocene)와 자본세(Capitalocene)로 표현되는 21세기를 그녀의 신조어 ‘쫄루세’(Chthulucene)라는 새로운 시대 개념으로 대체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맞서 과학-예술로 부활하고자 한다. 그녀는 『트리블과 함께하기』(*Staying with the Trouble*)에서 사람들이 안전한 미래를 도모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와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트리블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현재’에 임하기를 요구한다(8). 로렌이 포스트아포칼립스적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해러웨이의 ‘트리블과 함께하기’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변화’라는 지구종의 모토가 강조한 것처럼 지구를 넘어서 우주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변화시키고 개별적 주체로서가 아니라 집단공동체를 형성하여 생존 환경과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로렌의 대안이고 지구종이 추구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계속 변화해 나가는 ‘함께-되기’(becoming-with)를 추구한다. ‘함께-되기’는 다양한 종들의 관계맺기의 중요성을 지적하기 위해 해러웨이가 사용한 용어이다. 그녀는 한 존재의 ‘주체성’이란 이미 내재된 것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맺는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효과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지구의 유일무이한 주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로서 다른 종들과 공생(symbiosis) 혹은 공진화(co-evolution)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해러웨이(2021:13)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뜨거운 퇴비더미 속에서, 예기치 않게 협력하고 결합하면서 서로

가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 함께 되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다.”

라킨의 어머니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당시의 디스토피아적 현실에서 자연의 진화법칙에 순응하는 지구종의 급진적인 포스트휴먼적 입장과 고통 받는 가난한 이민자들과 타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로렌의 윤리적 선택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모니카 콥(Monika Kaup 2021:240)은 버틀러가 믿을 수 없는 화자인 라킨의 목소리를 삼입함으로써 우화시리즈에 자기비판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라킨의 입장에서 로렌이 종교적 반대세력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펼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에이콘을 파괴한 기독교 조직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일기는 2035년부터 갑자기 2090년으로 건너뛰어 어떻게 로렌이 경제적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사실 그녀의 재난서사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버틀러는 ‘우화’의 형식을 빌어 이러한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결국 우화시리즈의 마지막에서 기존의 정치적, 종교적 기존 체제 내에서 지구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파시킴으로써 당초의 그녀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며, 이제 지구 밖 행성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겠다는 지구종의 숙명 또한 실행할 단계에 이른다. 버틀러의 우화시리즈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 『은총을 받은 사람의 우화』로 완결된 것이 아니다.⁵⁾ 버틀러는 그녀의 후속작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로렌이 발견한 지구종의 유토피아적 가능성과 그녀의 선택에 대한 평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5) 버틀러는 1989년부터 그녀가 사망하는 2006년까지 계속해서 우화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속이는 사람의 우화』(*Parable of the Trickster*)를 집필하였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했다. 게리 캐너반(Gery Canavan 2014:2)은 지구종의 외부 행성에서의 세 번째 역사적인 숙명에 대해 버틀러가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지구종은 그것의 숙명을 달성했지만,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피터 백(Peter Y. Paik 2010:3)은 SF소설이 인지적 소원(cognitive estrangement)의 효과를 통해 그것의 유토피아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다코 수빈(Darko Suvin)의 주장을 지적한다. 저자가 살고 있는 사회보다 정치적 제도, 사회적 기준, 경제적 시스템과 삶의 방식들이 월등한 사회를 그리는 텍스트는 독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부정과 억압으로 가득찬 사회와의 간격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을 낮설게 한다. 결국 SF소설의 유토피아적 요소는 현재의 상태를 소설 속의 이상향으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암시를 포함한다. 반대로 포스트아포칼립스 소설은 현재보다 더 암울하고 부정적인 상황들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변경하거나 실행해야 할 일들과 책임에 대해 일깨워준다. 버틀러의 우화시리즈는 그녀가 그리고 있는 디스토피아적 미래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익숙한 현실이 다르게 보이는 인식적인 낮설게하기의 효과를 창출한다. 그 효과는 단순히 현실에 대한 각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그와 같은 미래에 마주할 수도 있는 아포칼립스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독자에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한다.

도너 해러웨이의 『트리블과 함께하기』의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사변적 우화 형식의 ‘카밀(Camille)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그녀에게 SF는 사변적 우화와 실뜨기로 변형되며, 버틀러의 우화시리즈 또한 해러웨이가 말하는 ‘사변적 우화’(speculative fabulation)로 정의할 수 있다. 해러웨이에겐 사변은 근거를 거부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출발하는 사유이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주장하는 체현적 객관성을 갖춘 철학적 사유이다(도너 해러웨이 2021:10). 버틀러의 우화시리즈의 주인공 로렌은 현실적인 캐릭터라기보다는 현실의 디스토피아를 견뎌내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방식을 찾아나서는 상징적 인물로 해석가

능하다. 그리고 그녀가 상상하고 실천했던 지구종이라는 종교 또한 아포칼립스적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삶의 방식으로써 한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지구를 초월한 우주에서 타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과 함께 공존하도록 하기 위한 긍정적 생존방식의 메타포이다. 로렌은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 동시대의 타자들과 후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구종을 설립하고 상호협력적인 공생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확장시켰다.

로렌이 이익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의 폭력과 정치적, 사회적 권력중심의 사회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구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로 맞섰던 것처럼, 버틀러는 ‘사변적 우화’의 형식으로 소설을 집필함으로써 독자에게 현대사회의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가지 트리플과 변화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긍정적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 또한 마치 농작물의 퇴비처럼 혼자가 아니라 협력하고 결합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하며 ‘함께-되기’의 가능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옥(2023), 「“별들 사이에 뿌리내리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에 나타난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와 공동체 회복」, 『영어권 문화연구』 16-1,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5-30.
- 도너 해러웨이 지음, 최유미 옮김(2021), 『트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 옥타비아 버틀러 지음, 장성주 옮김(2023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 김영사.
- 옥타비아 버틀러 지음, 정성주 옮김(2023나), 『은총을 받은 사람의 우화』, 김영사.
- 전소영(2022), 「애트우드 매드아담 3부작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유스토피아」, 『동서비교문학』 59,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439-62.
- 조윤주(2020), 「상상력을 통해 본 21세기적 『뒤를 돌아보며』와 “공유사회”」, 『동서비교문학』 53,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323-43.
- Atwood, Margaret(2014), *MaddAddam*, New York: Anchor Books.
- Butler, Octavia E.(2000), “A Few Rules for Predicting the Future,” *Essence* 264, 165-66.
- _____ (1993), *Parable of the Sower*, New York: Warner Books.
- _____ (2000), *Parable of the Talents*,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 Haraway, Donna J.(2008), *When Species Mee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owell, Phillip(2023), “Science Fiction and the Absurd: Lauren Olamina as a Symbol of Hope in Butler’s *Parables*,” *The Journal of Popular Culture* 55:5, 1084-1102.
- Kaup, Monika(2021), *New Ecological Realisms: Post-Apocalyptic Fiction and Contemporary Theory*, Edinburgh: Edinburgh UP.
- McCarthy, Cormac(2007), *The Road*, New York: Vintage Books.

- Miller, Jim(1998), "Post-Apocalyptic Hoping: Octavia Butler's Dystopian/Utopian Vision," *Science Fiction Studies* 25, 336-60.
- Moylan, Tom(2000), *Scraps of the Untainted Sky: Science Fiction, Utopia, Dystopia*, Boulder: Westview Press.
- Paik, Peter Y.(2010), *From Utopia To Apocalypse: Science Fiction and Politics of Catastroph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hillips, Jerry(2002), "The Intuition of the Future: Utopia and Catastrophe in Octavia Butler's "Parable of the Sower," *Novel: A Forum on Fiction* 35, 299-311.
- Stillman, Peter G.(2003), "Dystopian Critiques, Utopian Possibilities, and Human Purposes in Octavia Butler's *Parables*," *Utopian Studies: Journal for the Society of Utopian Studies* 14, 15-35.
- Thaler, Ingrid(2010), *Black Atlantic Speculative Fiction: Octavia E. Butler, Jewelle Gomez, and Nalo Hopkinson*, New York: Routledge.
- Canavan, Gerry(2024.1.31),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But There Are New Suns": Octavia Butler's *Lost Parable*," *Los Angeles Review of Books* 9.
<https://lareviewofbooks.org/article/theres-nothing-new-sun-new-suns-recovering-octavia-e-butlers-lost-parables/>. (검색일: 2024. 1. 31.)

❖ ABSTRACT

Critical Post-Apocalypse in
Parables of Octavia Butler

Jeon, Soyoung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narrative of Lauren Olamina, the protagonist in *Parables* of Octavia Butler, and the way she fulfills the Destiny of her imaginative religion, Earthseed, for the future in the reality of dystopia. The form of a post-apocalyptic novel has a paradox that describes a dystopic world and contains utopian hope at the same time. As a spiritual leader, she develops her utopian vision of Earthseed as a new moral and social paradigm to survive the post-apocalyptic period. Although she has a unique birth defect of hyperempathy with other's feelings, it becomes a kind of ability that makes her share others' emotions. And the belief system of Earthseed places human existence within a biocentric doctrine and natural evolution, which can be called posthuman. Earthseed's God-is-Change doctrine makes an effort to transform the apocalyptic reality into a habitable world by accepting flexibility and changeability for survival. In conclusion, Butler's *Parables* serves as a warning to the present to make a better future because she criticizes the realities by representing imaginative dystopian images of existing social problems and systems.

Keywords: post-apocalypse, dystopia, Octavia Butler, Earthseed, change

190 비교문화연구 제71집(2024.2)

■ 논문투고일 : 2024. 01. 10

■ 심사완료일 : 2024. 01. 31

■ 게재확정일 : 2024. 02. 06